



미 증시, 주중 이벤트 앞둔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4 일(월) 미국 증시는 파월의장 발언, 미 대선 경선,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 영향으로 단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 (다우 -0.25%, S&P500 -0.12%, 나스닥 -0.41%) 업종별로 유틸리티(+1.6%), 소재(+0.7%), 부동산(+0.7%) 강세, 통신(-1.5%), 경기소비재(-1.3%), 에너지(-1.1%)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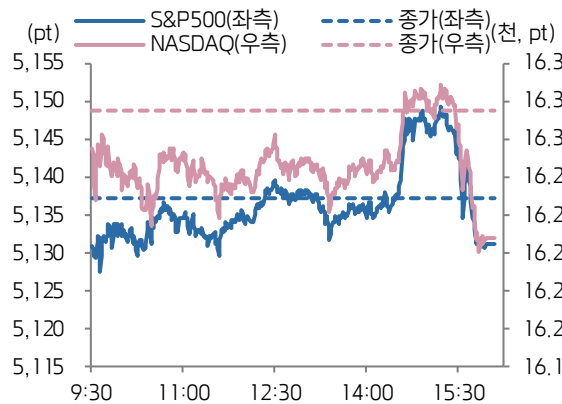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에 악화가 나타나지 않고 강력한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는 긴박한 현안이 아니며, 올해 말까지 두 차례, 0.25%p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 참여자, 비즈니스 리더, 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연속적인"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 '개별 주는 연방 공직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 는 수정헌법 14 조 3 항을 근거로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대법관 6 명 보수, 3 명 진보) 구도지만, 모든 대법관들이 개별주가 수정헌법 14 조 3 항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이터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8.65%)는 S&P500 지수 편입 소식에 추가 급등, 장중 30% 대까지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 마감. 애플(-2.54%)은 EU 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유로(약 2 조 7000 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 시장 예상보다 3 배 이상 큰 규모로 매출의 0.5%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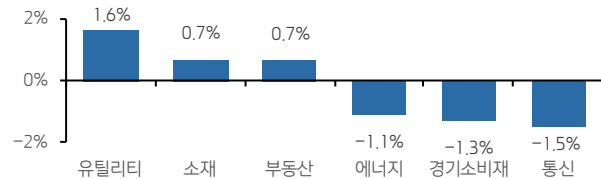
테슬라(-7.16%)는 2 월 상하이 공장 출하량이 60,365 대로 전월 대비 16%, 전년동기보다는 19% 감소, 2022 년 12 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며 주가 급락. 중국 춘절 연휴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 영향에 기인하며 BYD 역시 2 월중 판매량이 12 만 2,311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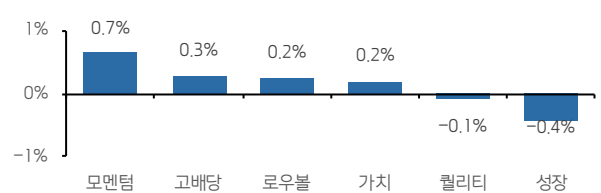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74.27	+1.21%	USD/KRW	1,331.27	-0.28%
코스피 200	361.10	+1.56%	달러 지수	103.83	-0.03%
코스닥	872.97	+1.16%	EUR/USD	1.09	+0%
코스닥 150	1,423.26	+1.5%	USD/CNH	7.21	+0.01%
S&P500	5,130.95	-0.12%	USD/JPY	150.54	+0.01%
NASDAQ	16,207.51	-0.41%	채권시장		
다우	38,989.83	-0.25%	국고채 3년	3.357	-2.5bp
VIX	13.49	+2.9%	국고채 10년	3.435	-4.5bp
러셀 2000	2,074.31	-0.1%	미국 국채 2년	4.602	+7bp
필라. 반도체	4,981.97	+1.06%	미국 국채 10년	4.213	+3.3bp
다우 운송	15,789.89	-0.27%	미국 국채 30년	4.353	+2.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12.92	+0.37%	WTI	78.74	-1.54%
MSCI 전세계 지수	767.07	+0.76%	브렌트유	82.93	-0.74%
MSCI DM 지수	3,364.04	+0.8%	금	2126.3	+1.46%
MSCI EM 지수	1,024.68	+0.37%	은	23.78	+2.72%
MSCI 한국 ETF	65.60	+1.03%	구리	385.2	-0.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0.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반적인 미국 증시 숨고르기 장세가 국내에도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 2.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등 미국 AI 랠리가 국내 AI 주들의 랠리를 연장시킬지 여부 3. 개별 악재로 인한 테슬라와 애플 주가 하락이 국내 관련 밸류체인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PCE 물가 컨센 부합, AI 랠리 확산,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 기대감,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등이 출몰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을 유지시키고 있는 중.

투자심리지표를 업데이트해서 봐도, 위험선호심리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 가능. 예를 들어, CNN의 Fear & Greed Index 는 4 일 기준 79pt 로 2 월 21 일 이후 극단의 탐욕 영역(76~100pt)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지표인 Bull-Bear 스프레드(낙관론과 비관론의 격차, 양수값이면 낙관론 우위, 음수 값이면 비관론 우위)도 역시 연초 이후 20pt 선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1.4pt)를 큰 폭으로 상회.

우려보다 양호해진 미국 경기, 연내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 현실화, 기업 이익의 호전 등 증시 안팎의 현실은 전망에 투영해 보면, 중기적인 증시 우상향 흐름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작년만큼의 폭발적인 지수 상승률을 구가하긴 어려워도, 올해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함을 시사.

다만, 최근 신경 쓰이는 노이즈성 재료는 두 가지로서, 우선 미국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 월 증시 강세와 맞물리며 급등했다는 것.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의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1 월말 2.81%대에서 현대 3.96%(퍼센티지 상승률로는 +40.8%)대로, 2 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 월 말 2.32%에서 현재 2.80%(퍼센티지 상승률로는 +20.5%)대로 급격히 치고 올라온 상황(같은 기간 나스닥 상승률은 +7.3%). 기대인플레이션은 미래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준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연관 지어서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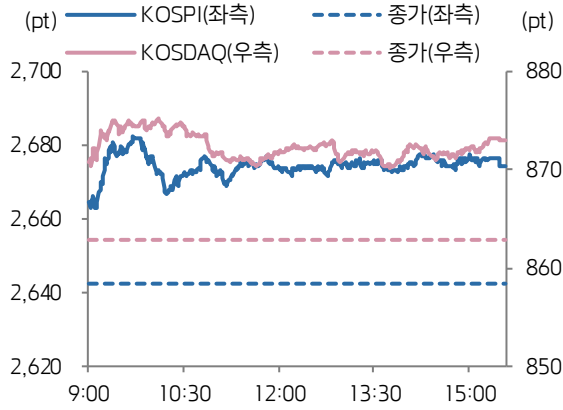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Fed Watch 상 6 월 금리 동결 확률이 2 월 초 2%대에서 현재 35%대까지 상승했다는 것. CME Fed Watch 는 그때그때 지표나 뉴스에 따라 확률이 빈번하게 바뀌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월스트리트보다 낙관 편향이 짙은 Fed Watch 초차 6 월 금리 동결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이처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급등 + 6 월 금리 동결 확률 상승”이 6~7 일 양일간 거쳐서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상하원 증언 전후로 증시 내 노이즈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중 시장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휴장 기간 동안 AI 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및 닷케이 신고가 경신, 컨센에 부합한 미국 1 월 PCE 물가 등 대외 호재성 재료를 장 초반 반영한 가운데, 장중에도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저 PBR 주 동반 강세가 이어지면서 1%대 상승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1.2%).

금일에는 엔비디아(+3.6%), 슈퍼마이크로(+18.7%) 등 AI 주 랠리,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동반 강세에도, 전반적인 전반적인 미국 증시 숨고르기 여파, 단기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지수는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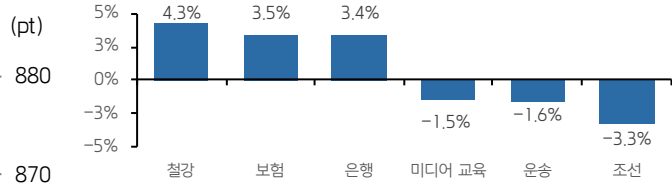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테슬라(-7.2%)가 작년 중국 출하량이 준절 역기저효과, 수요 둔화 등으로 약 19% 급감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던 국내 2 차전자주들의 투자심리에 제약을 가할 전망. 또 애플(-2.5%)이 음악스트리밍앱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EU 로부터 전세계 매출의 약 0.5% 수준인 18.4 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애플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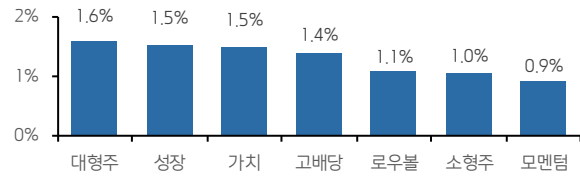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